

# 법률복지



KOREA FAMILY LEGAL SERVICE CENTER



사랑 · 평등 · 정의 · 평화 · 행복  
(Love · Equality · Justice · Peace · Happy)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기쁨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원은 가정에서부터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어  
온 세상이 큰 평화로 하나될 때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 조력 · 소송구조를 해드립니다.

• 상담방법 : 면접, 전화, 서신, 지상, 출장, 온라인상담

• 상담안내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4층 전화 : 2697-0155, 3675-0142~3/ 팩스 : 3675-0175  
전화 : 2646-1611 (교육원)

<http://lawqa.jinbo.net> / E-mail: lawqa@chol.com

## 2018년 후기이사회 개최



상담원의 2018년 후기 통합이사회가 지난 11월 22일 교대역 설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박종렬 이사장을 비롯하여 송상현·송정호·경수근·박현순·양정자·이교림·전성연·조애진·최금숙 이사와 김행자·노옥섭 감사, 김군자·박애경·안정희·염효순 운영이사, 이향주 상담실장, 김민정 변호사 및 고은지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년 10월 말까지의 상담원 사업 보고 및 상담원 복무규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상담원 본원의 자체회관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2019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개최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양정자 원장,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모임 참석

본원 양정자 원장은 지난 12월 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날 양정자 원장은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과 이태수 부장판사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상담원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개최하였던 〈사법개혁과 가정법원〉 특별강연회에서 제시한 가사사건 전문법관 및 가사조사관 제도가 실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당시 서울에만 있었던 가정법원을 전국에 확대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이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설치되고 수원에도 개원 예정임에 보람을 느낀다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이 국가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최후로 지켜주는 평화법원이자 후견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관희 평생회원 소천



상담원의 평생회원으로 창설 때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해 주신 이관희 전 오리온재단(前 서남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월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 이관희 평생회원은 1929년 함흥에서 태어나, 오리온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과 혼인하여 슬하에 2녀를 두었다. 이 회장이 작고한 1989년 이후, 재단법인 오리온재단(前 서남재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고인은 이양구 회장의 유지를 이어 사랑과 정(情),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고 이관희 평생회원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과, 고 이태영 박사가 창설한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이 땅에 법률구조사업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관희 전 이사장과 상담원 양정자 원장의 첫만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으로 양정자 원장이 근무하며 시작되어 이후 50년 이상 정의로운 인연이 이어져왔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되었고, 지난 11월 10일 양정자 원장과 고은지 상담위원이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그동안 고인께서 상담원의 사업을 지원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양정자 원장, 육아방송 시청자위원회 참석

양정자 원장은 지난 12월 7일 육아방송 본사에서 개최된 육아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육아방송은 지난 2008년 이후 오는 2019년까지 12년 연속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로 선정되었으며, 양정자 원장은 시청자위원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육아방송이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여 편성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